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인민군화보

2
1990



찬란한 향도의 해발

흠모의 정을 담아

리범수 작사, 설명순 작곡

1. 아름다운강산에 밝은빛을뿌리며
따사로운그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네
한마음충성을 다 바쳐 모시고따르는
찬란한향도의 해발이신 김정일동지

2. 백두산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며
우리 당을 이끌어 주체의 위업
빛내시네
우러러 **따**르는 그 길에 영광을 주시는
찬란한 향도의 해발이신 **김정일**동지

3. 공산주의 새 봄을 이 **땅**우에 펼치며
슬기로운 예지로 인류의 앞길 밝히
시네
주체의 상상봉에 천만년 길이 빛날
찬란한 향도의 해발이신 **김정일**동지

앞표지 : 붉게 핀 김정일화앞에서
(리장수동무소속 붉은기전위구분대 군인들)
사진 안연훈

뒤표지 : 언제나 기동할수 있게
(최문영동무소속 붉은기전위구분대에서)
사진 리경석





조국통일의 념원을 안으시고

끝없는 충실성과 지극한 효성을 따라배우자!

조국통일은 최상의 사명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매우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어느해 겨울에 있은 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오늘의 휴식일을 리용하여 산지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렬앞에 나서시여 친히 그들의 훈련복차림으로부터 점심식사준비까지 일일이 다 검열하시고나서 모두 차에 오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수도에서 몇십키로메터나 떨어진 인민군구분대의 훈련장으로 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곳에서 대오를 편성하신 다음 매 사람에게 자동보총을 수여하시고 행군해갈 목적지와 도착시간, 최종집결지점과 행군도중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용기백배하여 행군을 시작하였다. 반나절을 행군하여 목적지에 붉은기발을 꽂아놓고나니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모두가 무사히 집결장소에 도착하자 매우 만족해하시며 행군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시종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행군담》을 듣고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웬일인지 정색해지시더니 모두들 자기가 가지고있는 총을 검사해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누구라없이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받을 때에는 그처럼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던 무기가 언제 어디서 그렇게 되였는지 총가목, 총신, 탄창이 긁히고 칠이 벗겨져있지 않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총들을 쥐고 어쩔줄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전사는 무기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당이 혁명전사들에게 준 무기는 혁명의 무기라고 가르치시면서 인민무력부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한 로투사가 지금도 자기 무기를 어떻게 보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실례를 들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 원쑤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손에서 무장을 놓을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에는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조국 남녘땅을 강점하고 북반부까지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오직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 있어야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여 평생의 쌓이고쌓인 심려를 하루빨리 덜어드리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굳은 결심과 비상한 각오, 그 숭고한 위업에 바치시는 헌신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회의를 지도하시게 된 기회에 모든 일군들이 조국통일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밑에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록 난관은 있지만 앞으로 조국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가 가게 되든지 **김정일**비서가 가게 되든지 남반부에 나가게 될것은 틀림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한 일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해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때문에 그렇게 심려하시는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는 40년대에 어머님으로부터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데 대한 유언을 받았지만 80년대에 이르도록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은 수령님앞에 내가 책임진 최상의 사명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시였다.

진정 조국통일을 수령님앞에 자신께서 책임진 최상의 사명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혁명적각오와 헌신성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민족적숙원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충성의 선물

참대 차대와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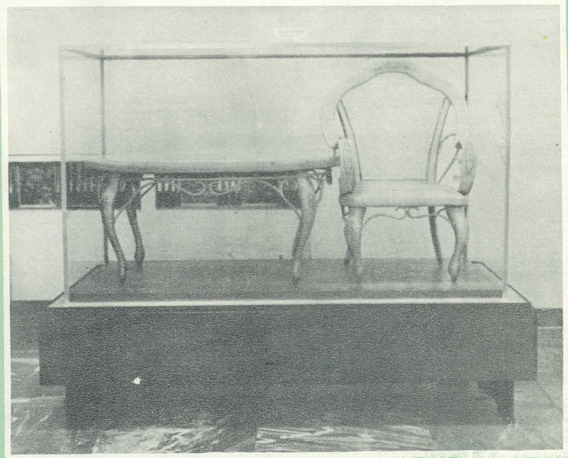
참대 차대와 의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351고지와 까칠봉의 최전연초병들이 삼가 올린 충성의 선물이다.

선물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군초병들의 절절한 념원이 뜨겁게 반영되여있다.

참대 차대와 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9년 4월에 강원도 고성군에 선물로 보내주신 21대의 참대가 숲을 이룬 가운데서 216,000오리의 실을 뽑아 한뜸두뜸 정성껏 엮어서 만든것이다.

차대의 테두리에는 목란꽃을 수놓았으며 차대의 가운데에는 **김일성**화와 목란꽃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참대 차대와 의자의 기본골조는 금강산의 정향나무로 만듦으로써 차대와 의자에서는 상쾌한 기분을 돋구는 정갈한 향기가 풍긴다.



참대 차대와 의자

백두광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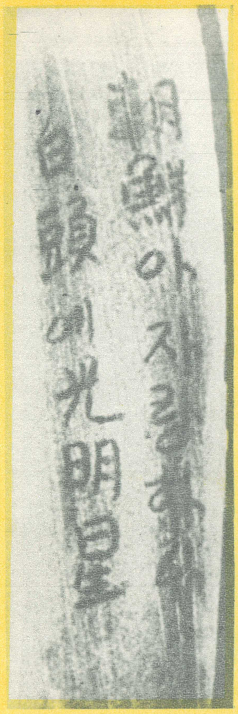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칭송한 혁명적구호문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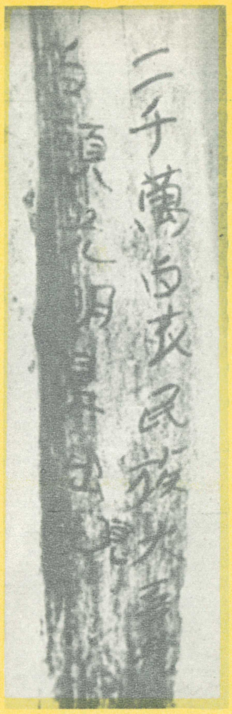
광복의 새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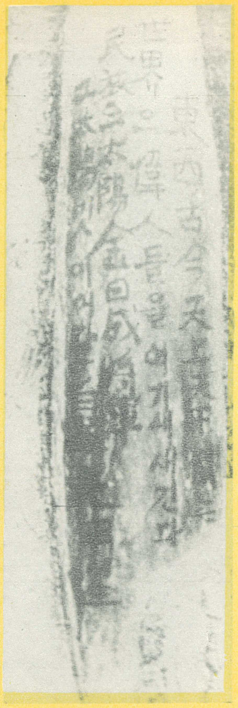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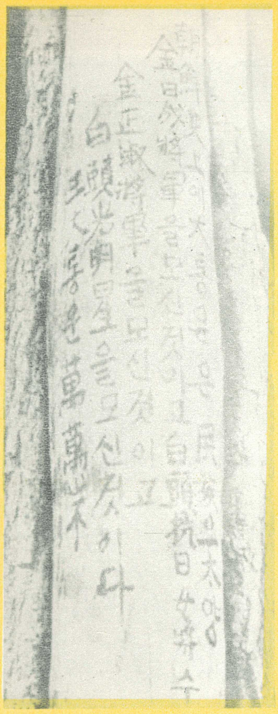
조선아 자랑하라
백두에 광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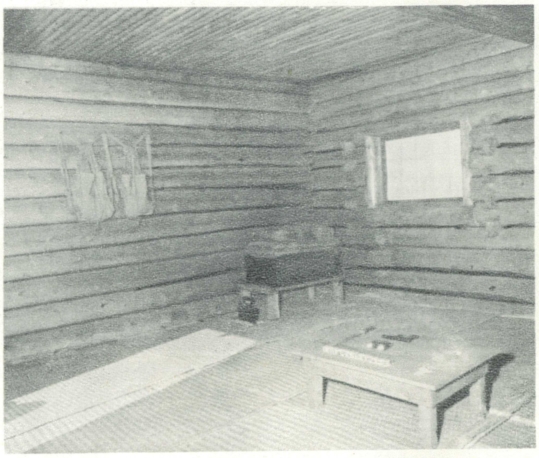
2천만백의민족 대통운
백두광명성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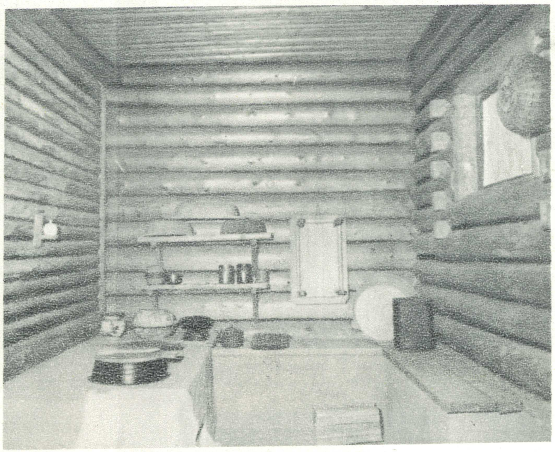


동서고금 천상천하 없는
세계의 위인들을 여기에 새긴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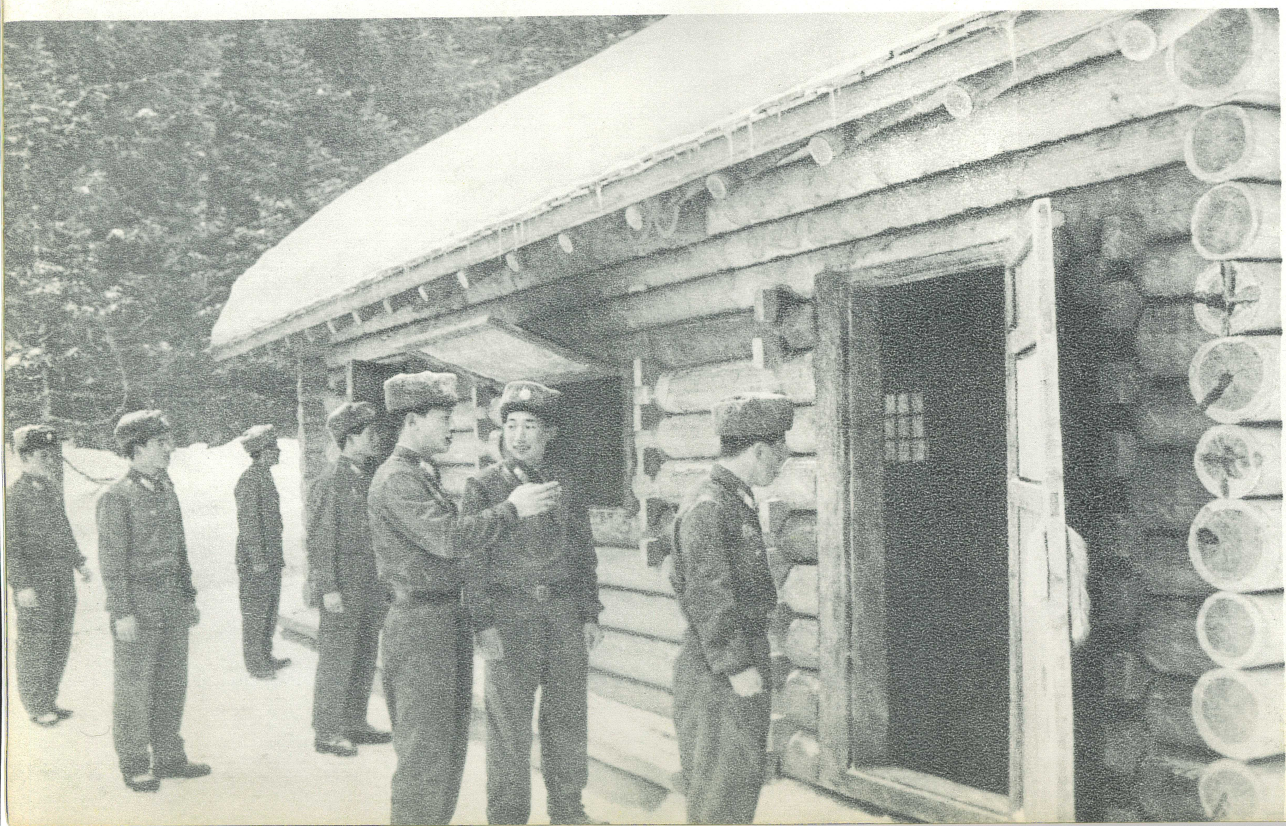


조선사상에 대통운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모신것이고
백두항일녀장수 김정숙장군을 모신것이고
백두광명성을 모신것이다
3대통운 만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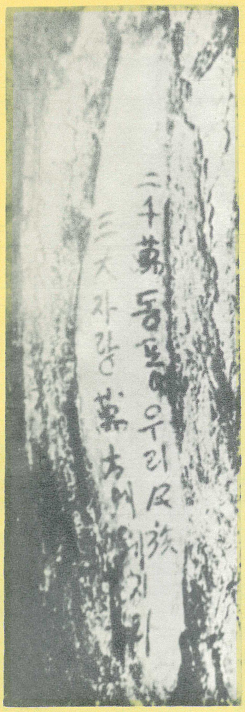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귀틀집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사적물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의 귀틀집을 돌아보는 군인들



2천만동포여 우리 민족
3대자랑 만방에 웨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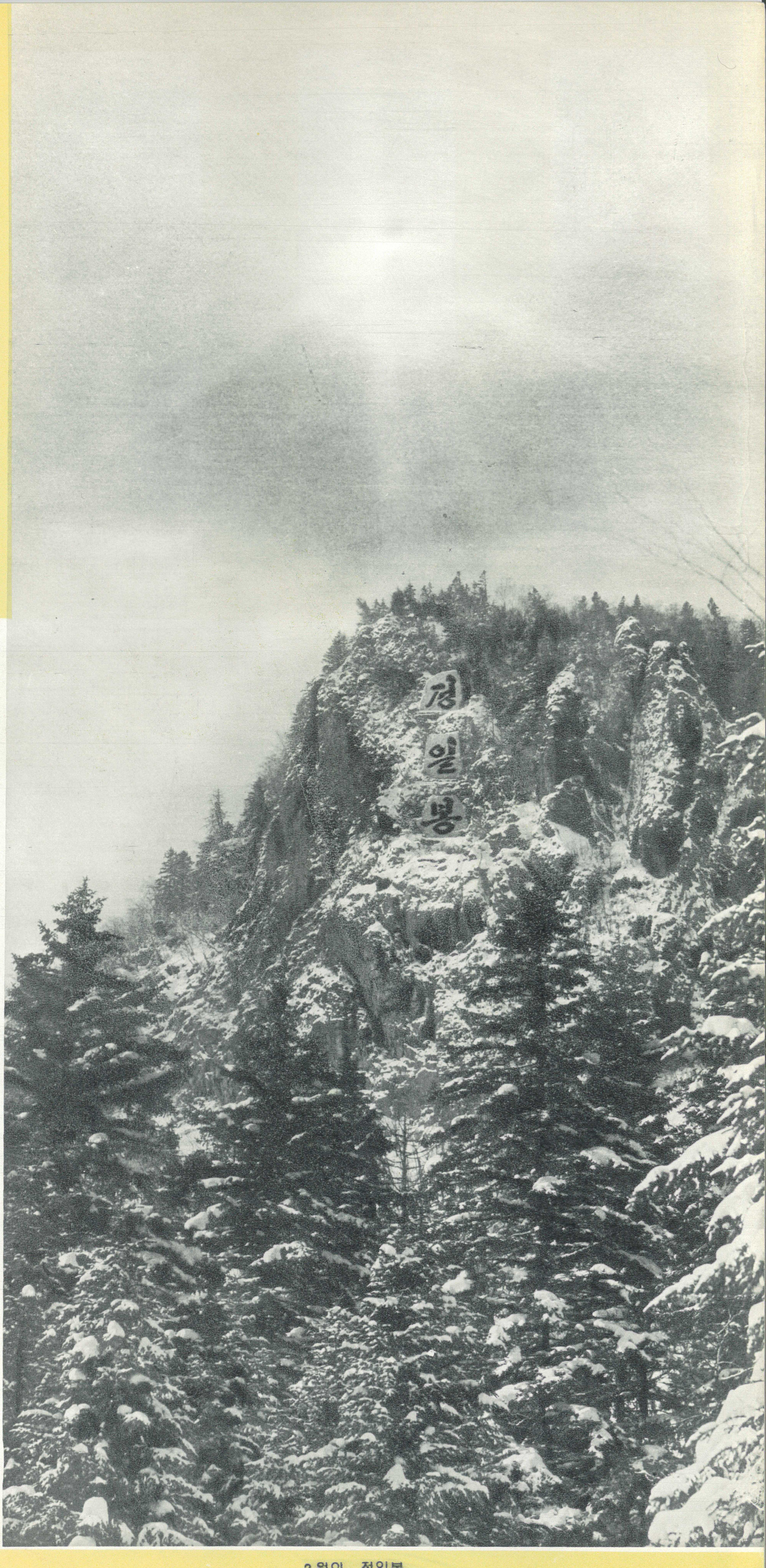
진달래 붉게 핀 봄언덕에
항일의 녀장군 고삐잡아준 백마에 올라
환히 빛나던 백두광명성
그 모습 우러러 환호하던 투사들
어찌하여 웃음속에 눈물짓고
뜨거운것 삼키며 소리없이 흐느꼈던가

영특한 눈빛
빛발쳐 가닿은 그 한끝에
장군님의 혁명위업 만대에 빛나고
조선의 래일이
창창히 열려져있음을 보았거니

획과 획에
그 신념을 새기고
글자와 글자에
그 기대를 담아
투사들은 심장으로 새겨놓았어라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동포모두 백두산 바라보라
　　　광명성 비친다—

아, 혁명의 명맥이 이어지는
조선의 대통운을 맞은 영광을
온 나라 온 겨레에 알려준 글발
세월은 흘러흘러도
설레이는 백두산밀영의 숲과 더불어
온 누리에 영원한 빛을 뿌리여라



2월의 정일봉

군건설의 위대한 령도



당정치사업방향을 밝혀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키우시여

1980년 새해의 설명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당적풍모를 철저히 갖추며 전군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지침으로 될 강령적인 말씀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수령님의 군대이며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가 한순간도 존재할수 없습니다.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기본임무는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 우리 인민군대를 강유력한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인민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고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까지 상세히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더욱 위력해지고 불패의 대오로 강화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군대로서의 끝없는 영예와 존엄을 찬란히 빛내여나가게 되였다.

글 리달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학습하면서 군관들은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진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울 불타는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군인들



3대혁명의 불길속에서 비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 하늘의 결사대로 자라났다.



해병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여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주체전법관철에로 이끄시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법은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무장장비,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요구에 맞는 가장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전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산악전과 야간전을 비롯한 수많은 독창적인 주체전법을 창시하시였으며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군사전법인 주체전법을 인민군대가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사업으로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매해 인민군대의 전투정치훈련방향과 그 내용을 규정해주시며 인민군대안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전투정치훈련진행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다. 그러시면서도 중요한 훈련들은 친히 지도하시면서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키워나가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군종, 병종 부대들과 전문병들의 훈련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인민군대가 풍부한 군사지식과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을 지니도록 이끌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고는 참으로 헤아릴수 없이 크다.

멀리 전연고지의 초소로부터 바람세찬 비행장, 풍랑사나운 바다, 이름없는 사격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주체전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인민군군인들을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깃들어있지 않는곳이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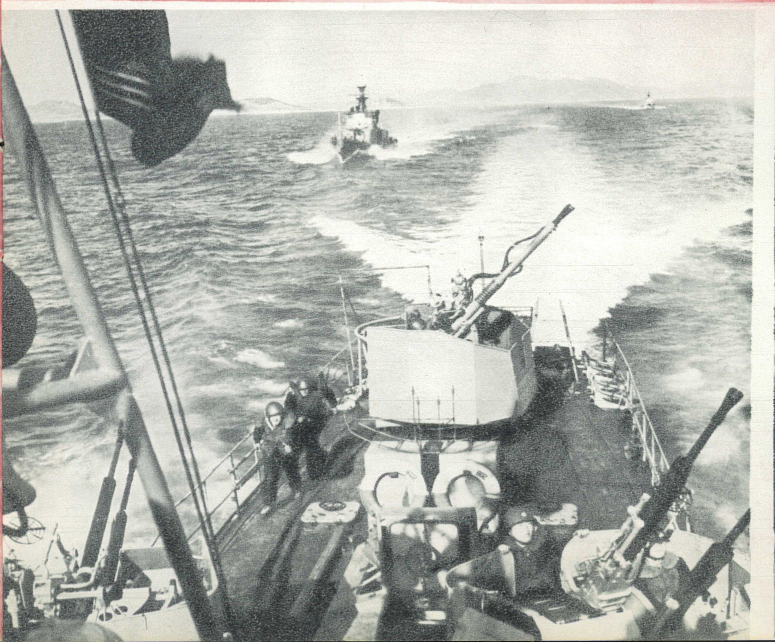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글 리달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의 요구대로 전술훈련을 지휘하는 지휘관, 참모부성원들





해상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만능해병으로 자라는 해병들



비행사들은 주체적인 전법을 공군전투에 구현할수 있게 비행훈련을 강화하고있다.



군인들속에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군인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배려는 초소군인들에게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키우시는 나날에 한없이 은혜롭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 군인들 모두에게 베풀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크나큰 사랑의 그 품속에서 우리 군인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공화국영웅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자라나고있으며 수령의 혁명전사, 당의 혁명전사된 끝없는 영예를 빛내여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전사들에게도 영생의 삶을 빛내여주신다.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유선택, 김태식, 라중은 동무들과 장룡철, 김용남, 리춘도 등 평범한 혁명전사들의 위훈이 신문과 방송, 출판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고 그들의 고귀한 삶은 영생의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들의 유가족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나를 주면 둘을 주고싶어하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도 무엇인가 더 주고싶어하는 살뜰한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우리 전사들을 따뜻이 돌봐주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전연초소와 해안초소, 땅크구분대와 비행장, 파도사나운 바다의 함선과 외진 섬초소 등 우리 군인들이 사는곳이라면 험한 길, 궂은 날을 가리지 않고 몸소 찾으시여 초병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연고지들과 섬구분대 군인들의 생활과 전투정치훈련에서 애로되는것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친히 전기, 수도, 삭도 공사에서 걸리고있는것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초소군인들이 적적해할세라 문화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군인들의 군복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여 우리 군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군무생활을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강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인민무력부의 한 일군을 친히 전화로 찾으시여 전연초소군인들의 생활형편을 다시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있다는 사실을 헤아리시고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하지만 전사들을 위하여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기밥가마로 밥을 해먹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혜로운 보살핌 속에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혁명전사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으며 아무런 불편도 없이 조국의 방선을 지켜가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대로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은혜롭고 크나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일당백 혁명무력의 위용을 온 세계에 떨치고있는것이다.

글 안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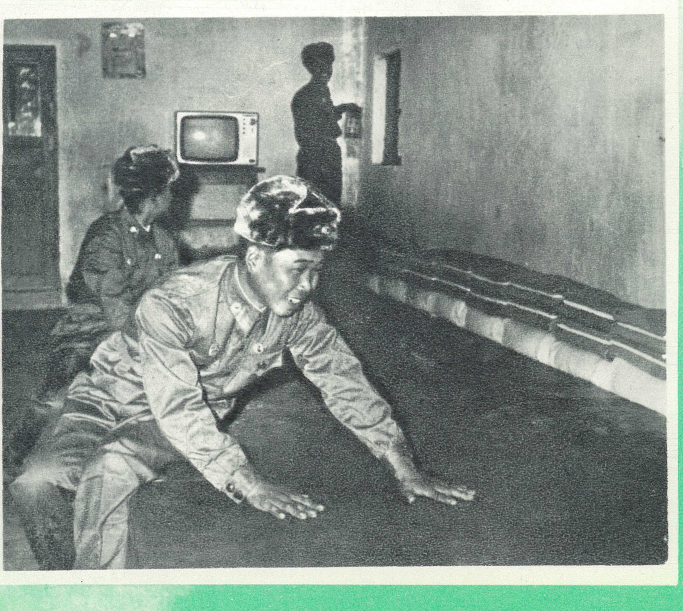
영생하는 정치적삶을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에 목메여 흐느끼는 유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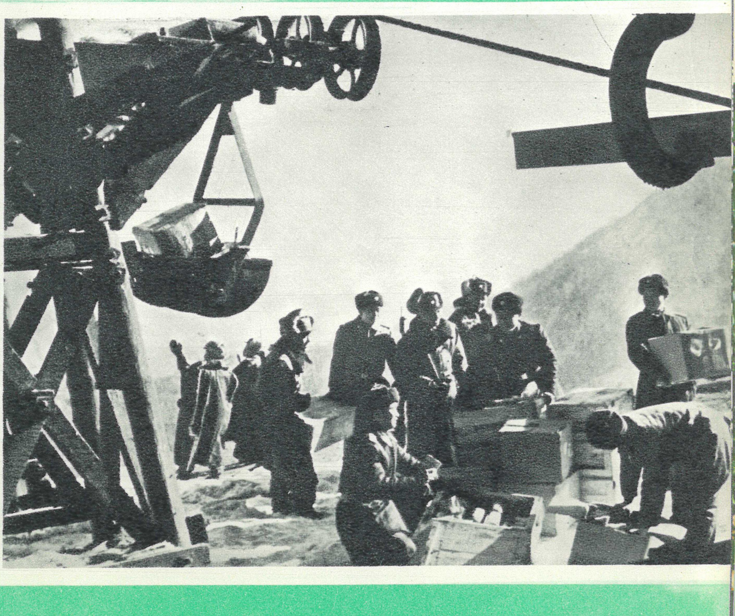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문화기재를 받아안은 군인들의 기쁨 끝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사랑은 초소병실의 전기온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 고지초소마다에 삭도가 오른다.





서해갑문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불러주시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경탄해마지 않는 서해갑문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 완공, 평양—원산사이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무비의 헌신성, 대중적영웅주의가 낳은 빛나는 위훈들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이 빛나는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던 나날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군인들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불러주시였을뿐아니라 이 거창한 건설전투를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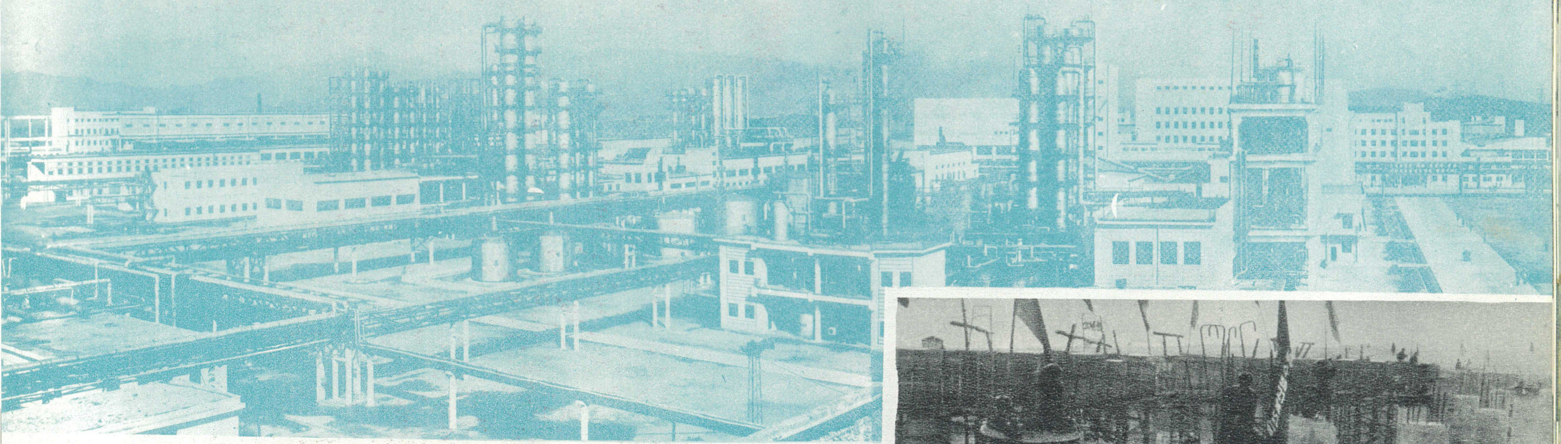
서해갑문 건설이 한창이던 1983년 4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건설장을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많은 일을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면서 우리는 군인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믿고 방대한 갑문건설을 하고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이날 공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갑문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공사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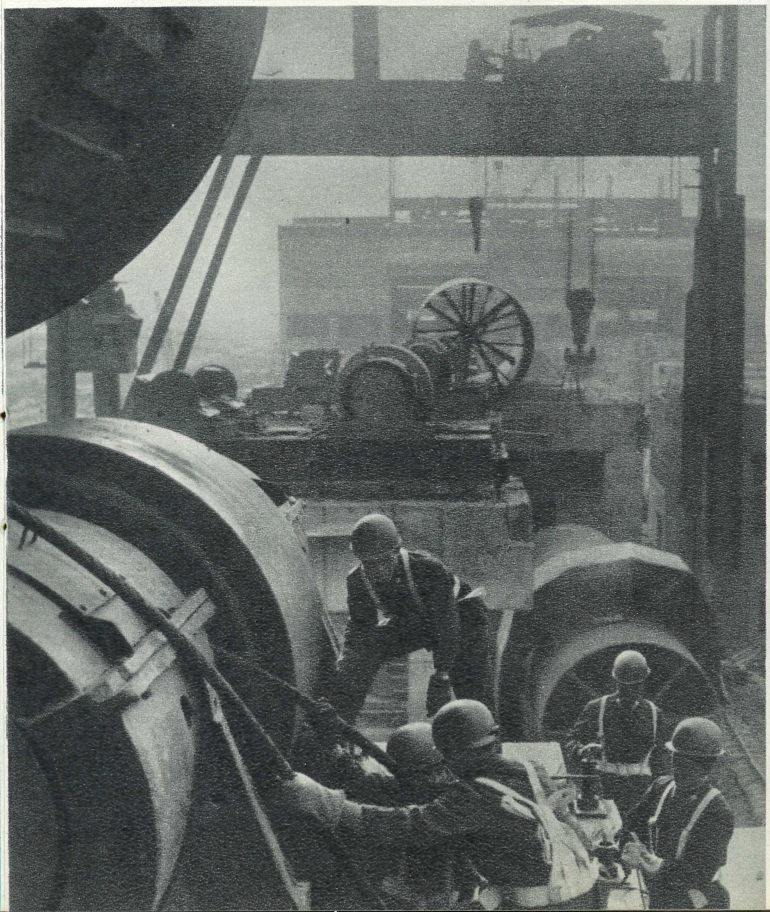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해갑문 건설현장에 대한 여러차례의 실무지도와 수많은 지시들을 주시여 서해갑문을 세계에서 최상급으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다 완공된 다음에는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우리 군인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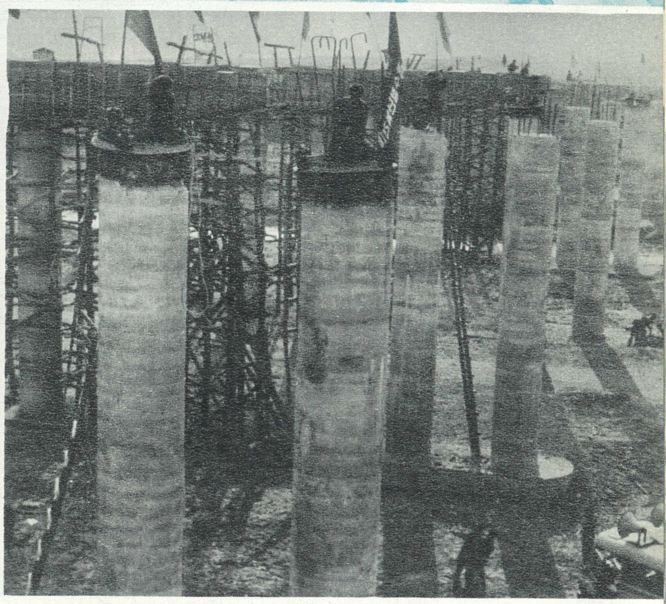
오늘 인민군군인들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2단계 공사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그리고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당이 맡겨준 중요대상건설과업을 기한전에 훌륭히 끝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글 장련희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군인들





당이 안겨준 담력으로 어려운 공사과제도 본때있게 해제끼고있는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

통이 큰 작전으로 례성강물길공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군인들



불멸의 꽃 김정일화



김정일화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천고의 밀림 흰눈 덮인 광야에
장엄한 봄우뢰 터치시며
시대의 구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천지의 푸른 기상
누리에 펼치시며
주체의 붉은 노을 펼쳐가시는
향도성 이야기

갈피갈피에 그 이야기 어리여
만첩으로 피였는가
불타는 그 열정 깃들어
붉게붉게 피였는가

뭇꽃들을 굽어보는
탐스러운 꽃송이
해님처럼 밝게 웃으며
진홍색 빛발을 뿌리거니

찬란한 그 빛발속에
봄빛은 짙어
온갖 꽃 피여나고
여름은 푸르고 가을은 불타는듯…

정녕 그 빛발 눈부신 곳곳에
웃는 꽃을 보면서도
눈물짓던 세상 끝장나고
참된 삶의 꽃 피여나거니

인류의 심장속에
뿌리내리고
다함없는 축원속에 만발하는
그대 **김정일**화여!

그대의 모습 간직하고저
온 세상 사람들
우러러보네
한없는 뜨거움에 젖어…

아! **김정일**화
우아함과 황홀함
어디에 비기랴
그대 정녕 꽃중의 꽃이여라

자주의 광원인양
지구라는 땅덩이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새 시대의 꽃이여라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무궁한 세월이 다하도록
영원히 영원히 붉게 필
불멸의 꽃 **김정일**화여!



김정일화온실을 찾은 군인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결의를 안고 김정일화를 보는 군인들



활짝 핀 김정일화를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는 외국의 벗들



5대훈련방침을 받들고

훈련을 정력적으

—김만복, 림영선 동무소속구분대에서—



군인들의 사격술을 높여주기 위하여 토론을 벌리고있는 군관들



사격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로 자라는 군인들



코

사진 박명철



행군길에 울리는 힘있는 선동은 병사들을 고무한다.

산을 넘고 강을 건느며 이어지는 행군길에서 군인들은 무쇠같은 체력을 단련해간다.



5대훈련방침을 받들고

젊은 비행사들의 훈련에 힘을 넣어



비행성과를 축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비행사들과 기술근무원들을 빨리 키워내며 비행사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훈련을 더욱더 정력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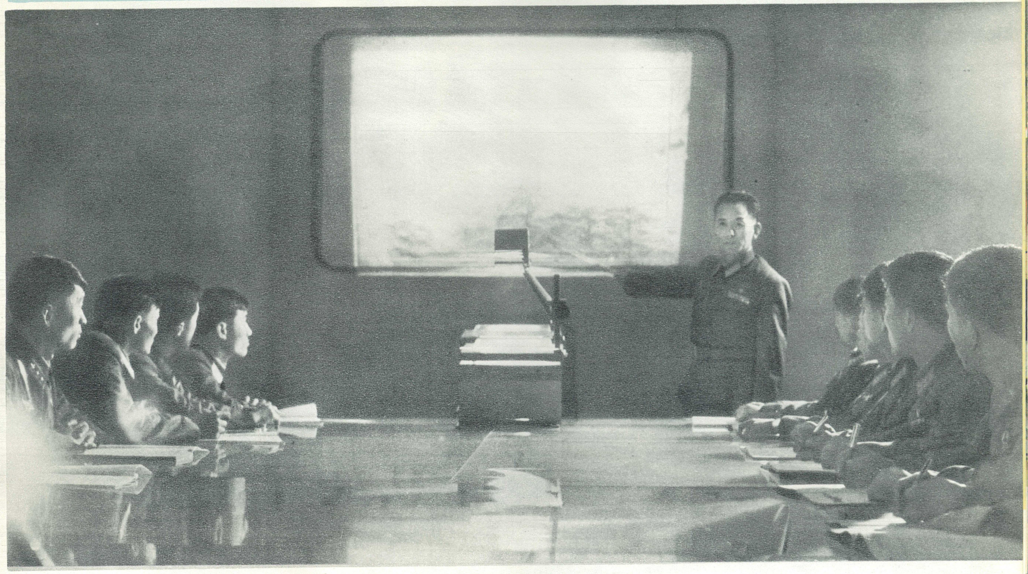
김광용동무소속 비행부대 지휘관들과 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훈련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젊은 비행사들을 유능한 비행사로 키우기 위해 바친 이곳 부대 지휘관들의 노력의 보람으로 젊은 비행사들은 짧은 기간에 비행기술에 정통하고 어려운 비행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자라났다.

아래에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사진. 글 리경석





리론적으로 잘 알도록

싸움준비의 첫 공정은 무기, 전투기술기재에 완전히 정통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곳 지휘관들은 젊은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적문제들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깨우쳐주어 그들이 비행기를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부대비행지휘관인 중좌 장천근동무는 젊은 비행사들의 비행술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직관물들과 훈련기재들을 훈련에 리용함으로써 그들이 빠른 기간에 비행기조종원리와 항법계산에 정통하도록 하였다.

늘 끼고 도와주어

젊은 비행사들의 곁에는 늘 오랜 비행사들이 있다.

오랜 비행사인 소좌 김려곤동무는 언제나 젊은 비행사들속에 들어가 살군한다.

하루훈련이 끝난 저녁이면 그는 젊은 비행사들의 침실에 찾아가 훈련의 우결함을 자세히 알려주고 부족점을 퇴치하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준다.

그는 젊은 비행사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비행과정에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을 제기하고 그에 대처한 방안을 젊은 비행사들이 능동적으로 찾을수 있도록 깨우쳐주면서 실속있게 도와주군한다.

경험도 알려주어

젊은 비행사들을 실천속에서 단련시키고 키우는것은 이곳 지휘관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지도방법이다.

그 과정에 그들은 자기들이 오랜 비행훈련과정에 이룩한 성과들과 축적한 경험들을 젊은 비행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중좌 김근수동무는 공중목표의 탐색과 소멸, 사격과 폭격, 야간비행과정에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젊은 비행사들이 받은 비행임무와 결부하여 차근차근 알려주군한다.







기념사진을 찍는 날에



사관과 병사

형과 동생이 함께 앉은 모습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찍은 한장의 사진이 있다.

병사들은 사진을 하나 찍어도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람들을 찾는다. 상등병동무가 분대장 김원철동무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된것도 군무생활의 나날에 자기를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분대장을 영원히 기억하고싶기때문일것이다.

이곳 구분대 사관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전에 병사들을 먼저 생각한다.

사관들은 병사들을 찾아도 동지 혹은 동무라고 규정대로 꼭꼭 부르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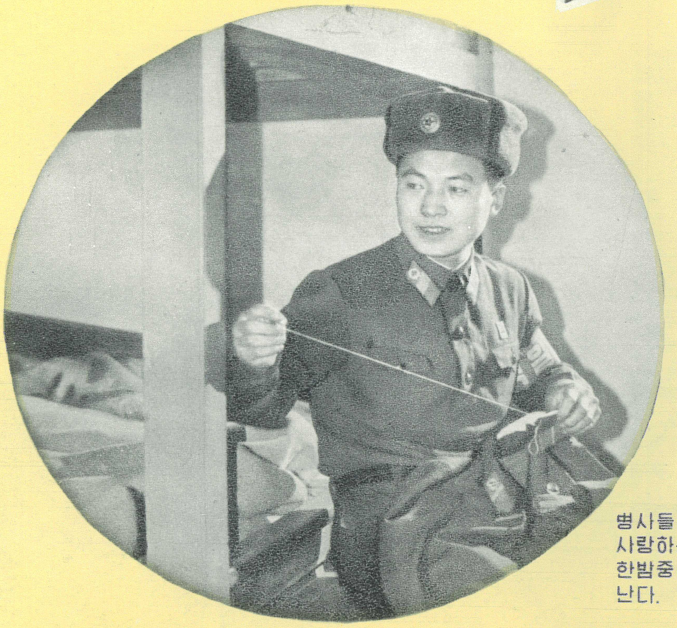
이들이 동지들간에 이렇게 부르는것은 다같이 혁명의 총을 잡고 한전호에서 싸워야 할 혁명동지이라는것을 잘 알기때문이다.

부모의 곁을 떠나 동지들속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혁명동지를 믿고 따르며 서로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지애에 기초한 충성의 집단으로 되랴.

때문에 이곳 사관들은 먹을것이 하나 생겨도 전사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힘들 때에도 전사들을 먼저 생각해주군한다.

여기에 사관과 병사간에 혁명동지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어려운 첫 행군의 설참에 분대장과 병사가 서로 생각했던 속마음을 그대로 적는다.

병사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밤중에도 꽃펴난다.





어려운 행군길에 병사들을 싸움군으로 키워가는 고춘학동무



사과 한알 생겨도 먼저 전사들을 생각하는 김원철동무

(…이번 강행군이 꽤 힘든데… 분대장인 나도 빼근한데 원필동무는 첫 행군이니 아마 몹시 힘들거야. 쌔물쌔물 웃군하던 인상을 찾아볼수 없는걸 보면 틀림없어. 아직 행군길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도와줄가.

그래,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가 좀 봐야지. 몹시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둬선 안돼. 앞으로의 싸움길에서 펄펄날게 하자면 지금부터 잘 이끌어주어야지. 휴식시간에 원필동무의 발싸개부터 바로해주자.…)

(…강행군이 힘들다더니 정말 헐치 않구나. 분대장동진 아마 나때문에 곱절 더 힘들거야. 이번 휴식시간에도 쉬지 않고 또 나때문에 걱정하며 발부터 보자고 하겠지. 빨리 제구실을 할수 있게 준비돼야겠는데…

그래, 이젠 내손으로 하자. 다리가 무거워서 움직일수가 없구나. 하지만 나도 이번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면 앞으로는 이쯤한 난관은 척척 이겨낼수 있을거야. 분대장동지가 오기전에 빨리 내손으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야지…)

사진, 글 로근수

사관과 병사가 한데 어울린 쉴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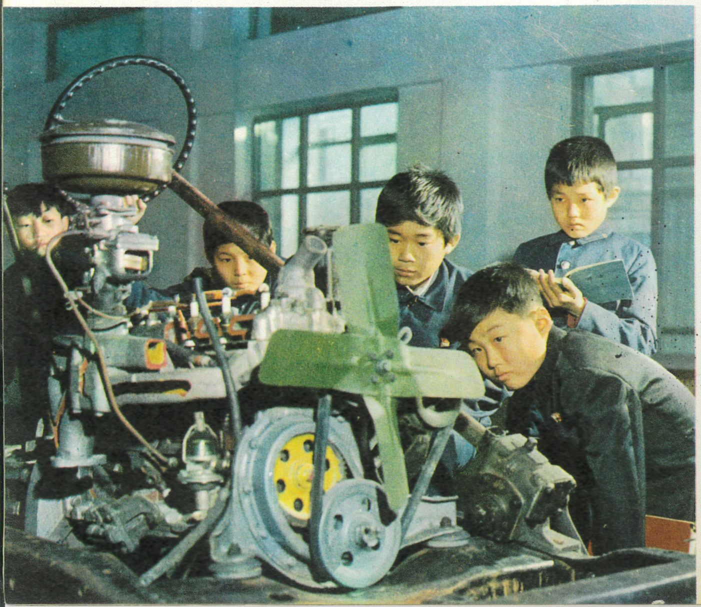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속에 솟아난 《2. 16학생소년궁전》

2.16 학생소년궁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있는 자동차소조원들



무용실에서 기량을 높여가는 소조원들







잘 꾸려진 무대와 800석을 가진 객석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배려와 은정 속에서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덕천시에 《2. 16학생소년궁전》이 새로 솟아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소년궁전의 터전도 잡아주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자재와 궁전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악기 등 모든것을 풀어주시였다.

《2. 16학생소년궁전》은 대동강반에 유람선이 떠있는 감이 나게 독특한 건축형식을 갖추고있으며 건평은 12,000평방메터나 된다.

여기에는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과 대중정치교양실, 전자계산기소조실, 자동차소조실, 라지오 및 텔레비죤소조실, 생물소조실, 외국어소조실, 음악소조실 등 각종 소조실들과 련습실들이 있다. 또한 현대적으로 꾸려진 800석극장과 롱구, 배구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이 있으며 1,500석을 가진 수영관도 있다.

오늘 《2. 16학생소년궁전》에서 덕천시의 학생소년들은 배운 지식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가며 앞날의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로 자라나고있다.

사진, 글 림광덕



배구, 롱구 경기도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

재봉실은 녀학생들이 즐겨 찾는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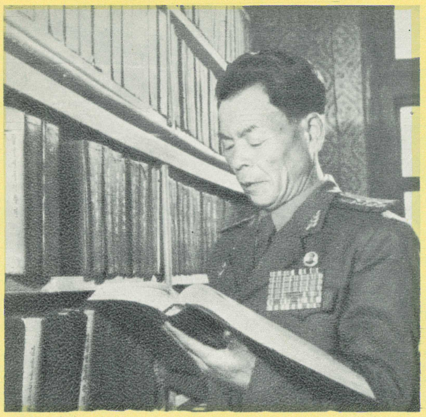
소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미술실



모두다 숨은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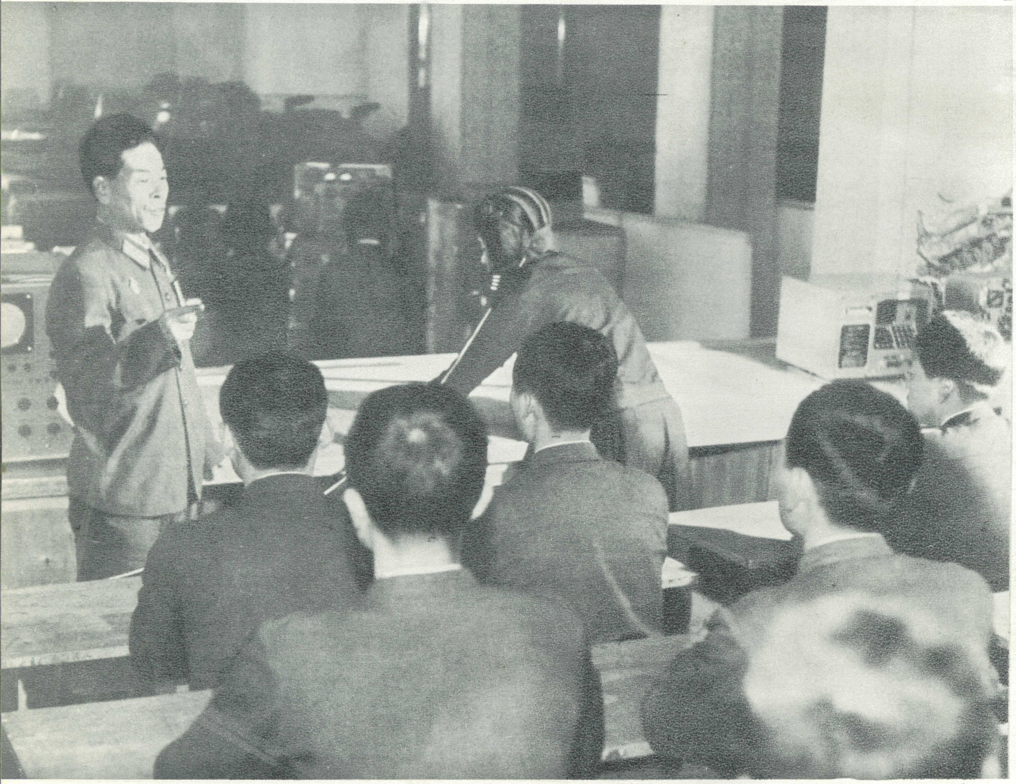
교육자의 본분을 지켜

―허주봉동무소속군사학교 숨은 공로자 염기설동무―



교육내용을 보다 새롭게 완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강좌장 염기설동무

학생들을 유능한 지휘관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심화시키고있는 염기설동무



염기설동무는 새로운 교육기재들을 수많이 창안제작하여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리용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들입니다.》

허주봉동무소속 군사학교 강좌장 염기설동무는 지난 30년간 교육자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을 수많이 키워낸 숨은 공로자이다.

염기설동무는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인민군대의 군사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몇해전, 학교에 새로 생긴 강좌의 강좌장으로 임명되였을 때 염기설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짧은 기간에 교수를 진행할수 있게 준비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염기설동무는 이것을 당의 믿음과 신임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교원들과 함께 교재집필사업에 달라붙었다. 수많은 과학연구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수백리의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다.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진지하게 토론도 벌리고 참고서적들과 기술문건들을 연구하며 밤에 낮을 이어 잠시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다.

하여 염기설동무는 여러 과목의 교재를 완전히 자체의 힘으로 완성함으로써 제때에 교수를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염기설동무가 지난 30년간 자체로 집필하여 학생교육에 리용한 교재는 무려 수만페지에 달한다.

또한 염기설동무는 수십건의 현대적인 교육기재를 창안제작하여 학생교육에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과외복습지도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자기가 맡았던 학생모두를 우등,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시켰다.

오늘도 염기설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안고 모든 학생들을 현대적군사과학기술에 정통한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사진, 글 장련희

이란회교공화국 군 사 대 표 단 우리나라 방문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은 인민군부대를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의 초청으로 이란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 모호쎈 레자이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 단장인 모호쎈 레자이각하를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이란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은 선물을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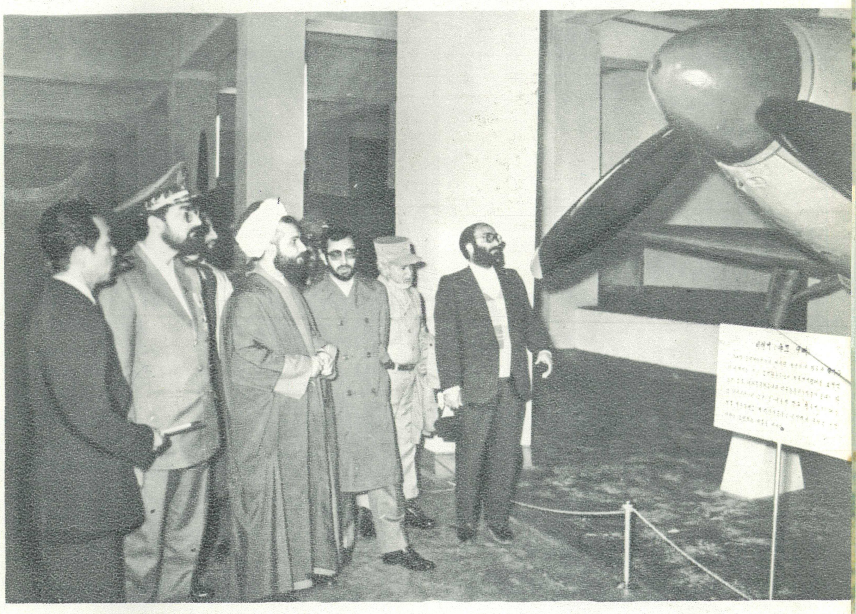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또한 군사대표단은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하였으며 군인들의 전투훈련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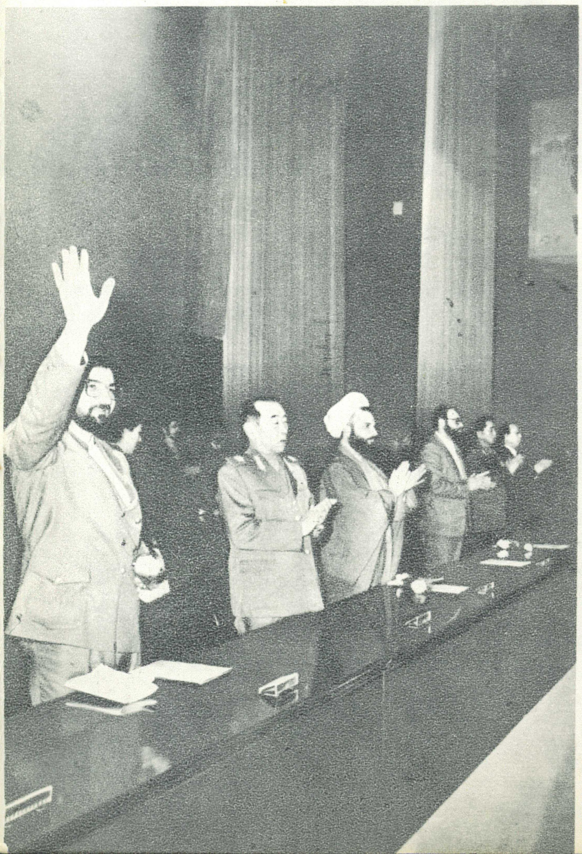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근로자들과 주둔부대 군인들의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자주의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과 군대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이란회교공화국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영광의 땅— 청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2월 력사적인 청산리당총회를 지도하여주신곳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범을 창조하신 단위입니다.》

청산리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력사의 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여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잊지 못할 30년전 1960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이 과정에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청산리를 공산주의표본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시려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한량없는 사랑속에서 청산리는 오늘 공산주의농촌의 본보기농장으로 전변되고있다.

도시 부럽지 않게 즐비하게 늘어선 아담한 문화주택들에서는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 넘쳐흐르고 기계와 약으로 농사짓는 현대적인 농업생산기지로 전변된 농장벌에서는 해마다 만풍년의 노래소리 울려퍼진다. 공업화, 현대화로 달려나가는 자랑찬 길에서 농장원들모두가 기계운전공, 기사, 기수로 자라나고있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으며 누구나 다 배우며 기술자로 자라는 영광의 땅 청산리, 공산주의언덕을 향해 앞장서나아가는 청산리의 래일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사진, 글 엄광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신 불멸의 사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듣고있는 농업근로자들





기계화작업반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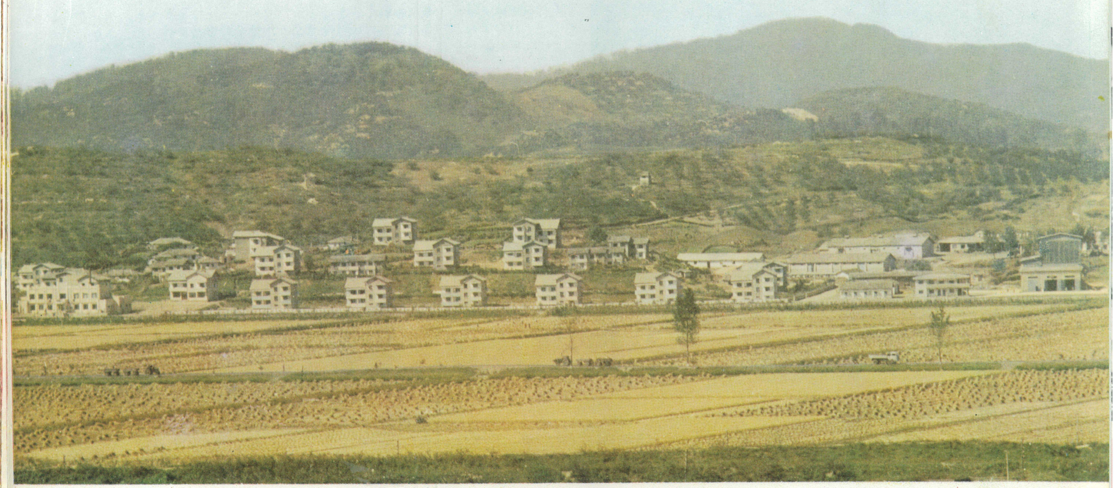
청산농업대학에서 공부하는 농장원들의 포전실습



농장에는 문화정서생활을 잘할수 있게 여러가지 시설이 잘 꾸려졌다.



농장원들의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 넘친다.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제1부 언약, 제2부 생명

—제1부 《언약》의 대사가운데서—

학범—《그런 당결정을 자꾸 채택해선 뭘합니까? 형식적으로 손이나 들고…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집행되지 않는 결정은 다시는 채택되지 말아야 한다는겁니다.》

《집행 못할 결정서초안을 내놓고 당원들에게 손을 들라고 하면 군중이 웃습니다.》

《공장당위원들로서 자신보다, 가정보다 공장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일점의 사심도 없이 순결하게 살아왔다고 말할수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당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가는 길 험난해도 시련을 함께 넘겠다고 맹세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 이게 입에 침바른 소립니다.

지난 5년간 구역적으로 유독 우리 공장만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포총회, 부문당총회 지어 초급당총회에서까지 우리는 〈자동차, 뜨락또르 다이야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시적으로 제기되는 운수를 원만히 보장할것이다.〉라는 똑같은 결정서를 꺼리낌없이 채택하여왔습니다.

위원동무들! 자신도 속이고 당도 속이는 이런 종이장우의 결정서를 이번 총회에서 다시 채택하잡니까?》

《동무들, 옛말에 〈순경은 간신을 시험하고 역경은 충신을 시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경에 만세부르기보다 역경에 심장을 들이댈 사람을 더 중히 여깁니다. 당에서는 당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군중자신의것으로 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가르쳤습니다. 군중이상 우리에게 더 훌륭한 선생이 없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당결정, 이건 목숨으로 담보돼야 하오.》

염전처녀—《당원들이 죽었어도 세포결정서는 살아있어요. 전사한 당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구 당결정서를 홍정하자는거예요… 당원 한사람이 남아있는 한 절대루 그렇게 할수 없어요.》



부비서에게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앨데 대하여 깨우쳐주는 원학범

염전당원들과 같은 당적량심을 지니고 당결정을 채택하는 당원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다부작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제1부 《언약》, 제2부 《생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리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여진대도 헤여진대도
심장속에 남는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잊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속에 없는이 있고
잠간 만나도 잠간 만나도
심장속에 남는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이와 같은 주제가속에서 영화는 당일군들이 당적량심을 가지고 당결정을 채택하며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할데 대한 문제 등을 깊이있게 그렸다. 영화에는 또한 당원들이 당결정을 채택할 때 주인다운 립장을 가질데 대한 문제, 채택된 결정을 존엄있게 대하며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 기풍을 수립할데 대한 문제등이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영화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사업과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현실성있는 당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원학범

—제2부 《생명》의 대사가운데서—

학범—《우리가 당결정서에 합성고무를 〈리용해서〉라고 박았던가요. 내 기억엔 〈재생고무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이렇게 했던것 같은데요.…
정 힘들면 집행위원동지들, 이 결정서의 일부 문구를 동무들의 요구대로 수정하는게 어떻습니까. 〈합성고무원료에 전적으로 의거하여〉를 〈합성고무도 리용하면서〉로 수정한다면… 그런데 수정하기전에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당원증을 내놓으시오. 못내놓겠습니까? 그럼 당원증도 안내놓고 당결정을 수정하자고 했습니까? 난 당증을 메고는, 우리 당의 당원증을 이 가슴에 안고는 량심이 걸려서 감히, 감히 당결정에 손을 못대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당결정은 생명이라고 웨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중에 누가 진짜 제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당결정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혁명임무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효심—《고모, 아버질 보내자요.
아버진 당비서가 아니나요. 당비서가 가정일을 앞세우면 큰일을 못한대요.》

영갑—《여보, 난…사실 당에 너무 쉽게 들었댔어. 그래서 당결정이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는걸 여태 입으로만 외워왔거든.》

학범—《원래 남을 헐뜯는데 이골이 난 사람일수록 처세술이 능하고 당적인 언사를 잘 쓰지요.…
동문 오늘 하루일과만 봐도 기술도면에 수표한것 두건, 기술협의회에 참가한것 두시간, 그외 한 일이 있습니까?…
혁명에 투신하기는 싫지, 높은 대우는 받고싶지, 능력은 없지 하니까 뭣이 나오는가?
초당성, 능란한 처세술…
하니까 당결정집행에 앞장선 핵심당원들의 뒤다리를 잡아당기려고 한단말입니다.》



설계과장의 무책임성과 아첨을 준절히 비판하는 원학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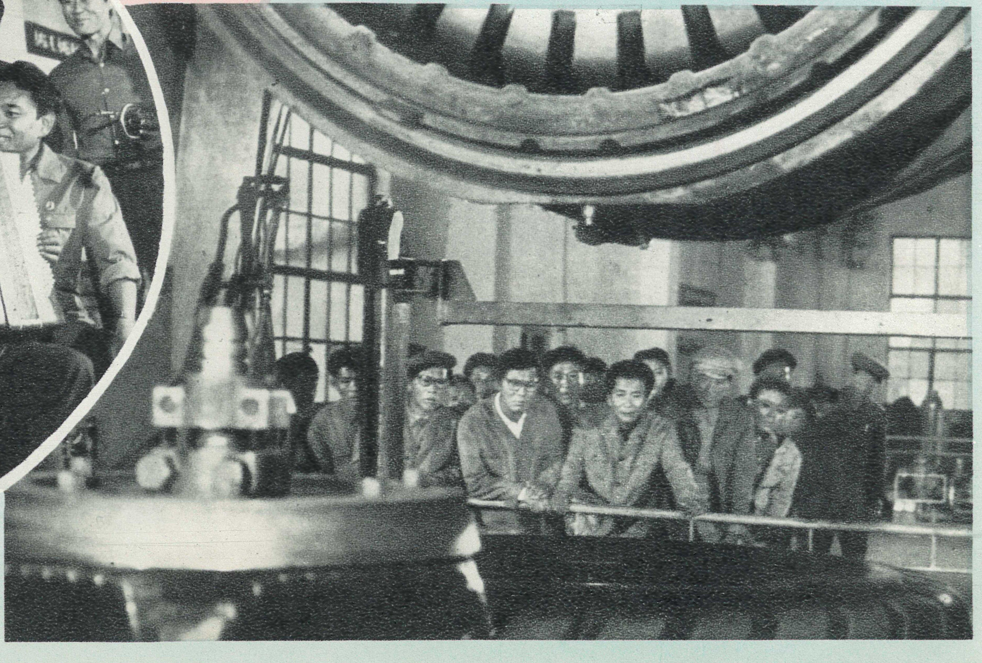


임석준은 파고무를 재생하여 당의 믿음에 보답한다.

원학범은 당원대중의 심장을 울려 당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공장예술소조원들을 발동한다.



당원들은 당결정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드디여 자체의 힘으로 다이야를 생산한다.



토막소식, 알아두기

군의일군 정성경험발표회가 있었다.



발표회에서는 약품 및 치료기재전시회도 있었다.

얼마전 양형삼동무소속부대에서는 군의일군정성경험발표회가 있었다.

발표회에서는 40여명의 군의들과 간호원들이 정성사업에서 이룩한 자기 구분대의 성과와 경험들을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정성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방침대로 군의일군들과 간호원들의 정성이 지극하면 못해낼 일이 없고 환자치료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대위 황윤경, 소좌 장충식, 상위 박찬호, 상좌 김원학, 중좌 전봉갑, 중좌 김명관, 소좌 백기호, 대위 한웅목, 중사 윤성옥, 간호원 황금숙 동무들은 환자들에 대한 정성이 있었기에 치료사업에 필요한 설비들과 여러가지 동약들을 자체로 만들수 있었으며 치료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토론하였다.

사진, 글 로근수

좋은 경험을 발표한 동무들

							
중좌 김명관	중좌 전봉갑	소좌 장충식	소좌 백기호	대위 황윤경	대위 한웅목	상위 박찬호	황금숙

군인가족생활필수품전시회



얼마전 인민무력부에서는 군인가족생활필수품전시회가 있었다.

여기에는 식당기계화에 필요한 소형자동 및 수동 가공기재들, 제분, 국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가공할수 있는 만능가루기계 등 관하부대들에서 올라온 4,491종에 1만 8,300점의 군인가족생활필수품들이 전시되였다.

이번 전시회에 나온 모든 품종들은 군인가족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이다.

동명왕릉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에는 고구려의 첫 왕인 동명왕의 무덤이 있다. 동명왕릉은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온 5세기초엽에 만든것인데 당시 고구려에서는 도읍을 옮길 때 왕의 무덤도 함께 옮기는 풍습이 있었다.

왕릉의 외형은 밑둘레의 한 변이 약 22메터, 높이 6.3메터의 4각뿔형이며 2중으로 밑단석을 둘렀다. 무덤간은 비교적 큰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왕릉앞에서 고구려의 고유한 절간형식을 갖춘 정릉사터를 발굴하였다. 동명왕릉과 정릉사터는 고구려의 슬기로운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데 국보적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사랑의 환갑상을 받아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환갑상을 받아안은 특류영예군인 시인 김시권과 그의 안해 권순희녀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16일, 특류영예군인이며 시인인 김시권과 그의 안해 권순희녀성에게 사랑의 환갑상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일찌기 가렬한 전쟁마당에서 부상을 당하여 특류영예군인으로서 당의 배려를 받아안기만 하고 보답을 못하여 죄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고있는데 또다시 은정어린 환갑상까지 받아안게 된 김시권과 권순희녀성은 뜨거운 격정에 흐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하늘땅을 합쳐도 따르지 못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충성의 마음을 안고 이들부부는 환갑상을 가지고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황경수동무소속부대에 달려나가 군인들속에서 선동연설도 하고 자작시도 읊으면서 군인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사진, 글 장련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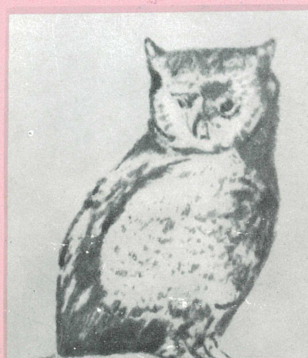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속에서 여러가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는 시인 김시권과 그의 안해 권순희녀성

시인 김시권과 권순희녀성은 사랑의 환갑상을 가지고 고속도도로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찾아왔다.



접동새



접동새는 부엉이과에 속하는 사철새인데 소쩍새라고도 한다. 부엉이들가운데서 제일 작다. 몸뚱이 무게는 80그람가량이다. 보통 산림에서 사는데 낮은산이나 공원,마을두리에서도 산다. 낮에는 늙은 나무가지우에 앉아있거나 나무구멍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나와다니면서 주로 들쥐와 곤충을 잡아먹는 리로운 새이다. 여름에는 키높은 넓은잎나무에서 해질무렵부터 밤동안《접동—접동》하고 운다. 흐린날에는 낮에도 운다. 때로《소쩍—소쩍》하는 소리로 울기도 한다. 밤에 우는 새로서 울음소리가 특이하여 예로부터 시, 노래에 많이 적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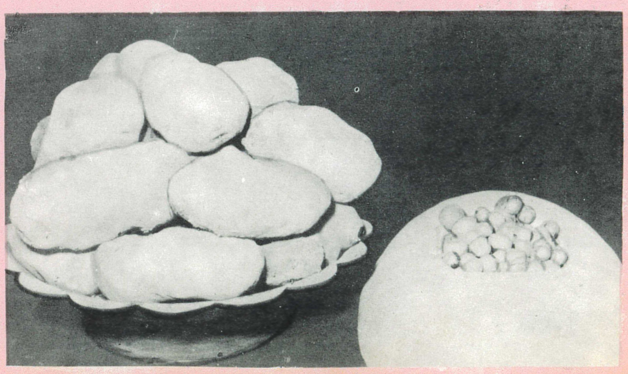
새로운 종자감자 생산

감자를 수확할 때 흔히 밤알같이 작은것은 스쳐버리는것을 볼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리는 작은 감자알로 감자의 생물학적특성을 리용하여 인공적으로 짧은 기간에 큰 종자감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한알의 평균무게는 한키로그람, 지어는 두키로그람 되는것도 있다.

사진의 오른쪽은 버리던 작은 감자알, 왼쪽은 새로 만들어낸 큰 감자이다.





편집위원회

인 민 군 화 보 1990년 2월 (루계 제 443호)

낸 곳: 조 선 인 민 군 출 판 사 인쇄: 1990년 1월 25일

인쇄소: 조선인민군종합인쇄공장 발행: 1990년 2월 1일

ㄱ- 89327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13005호(화)